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임동욱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의 대권 주자들도 잇달아...

여기에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도...

2012 대선의 법칙

예측불허 대결구도 형성될 듯

지난 97년 대선에서는 DJP 연대(김대중-김종필 연대)와 함께 영남 표심을 이끈...

그동안 민주통합당 등 개혁 진영이 보여준 역량 부족 때문이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통합과 전략도 전락도, 감동도 없었던...

이렇게 하고도 개혁 진영은 전국적으로 39만표(1.3%포인트), 57만표(2.3%포인트)라는 박빙의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개혁 진영이 총력전을 펼쳐야 보수 진영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 같은 법칙은 2012년 대선에서도 유효할 전망이다.

은편칼럼



류동훈

지난주 일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마다가스카3'를 보았다. 뉴욕 동물원에 살다가 아프리카로 돌아간 동물들이 다시 뉴욕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고 싶어한다.

성공한 동물이 되자

인간과 동물 중 누가 더 나을까 고민해 보았다. 그런데 순간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인간이 기 전에 먼저 동물의 한 종류인 것이다.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 둘 이상은 낳아서 번식을 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겨우 하나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대로 가자면 인류는 언젠가는 멸종하는 것이 아닌가?

기고



지현아

"6·25 전쟁을 일으킨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을 우리의 손으로 처단하자!" 북한에 있을 때 학교에서 항상 6·25 때면 결의대회에서 외치던 구호였다. 북한에서는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가르친다.

6·25 전쟁에 대한 거짓과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해 나의 자유를 찾으려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자유를 외쳤다. 현대 민주통합당의 인수경 의원은 이런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지칭했다.

나라가 아픈을 알려 준 그야말로 '통일의 꽃'이었다. 관문점을 통해 돌아갈 때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인수경을 보면서 북한사람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화장품 성분 표시하고 최소한의 부작용 알려줘야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만은 화장품 광고나 실제 판매되는 화장품 성분 표시는 물론 부작용 등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말로만 써 놓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서고급 남녀노소 누구나에게나 다 잘 맞는 화장품이라는 식으로 선전을 한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일부 색소나 알코올 등의 정말 최소한의 성분만을 마치못해 표기 한 채 자극적인 모델과 과장된 설명홍보로 일관한다 보니 누군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000 교수팀 피부부 테스트 완료" "오직 천연 성분, 오일 프리"란 말 등으로 현혹하는 문구들도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객들이 듣기 좋게 꾸며 놓은 말들만으로 피부에 선뜻 마르게 하는 상술, 100ml도 안 되는 양에 몇만 원 몇 십만 원을 불리는 브랜드회사의 화장품 등에 소비자들은 매일 속고 있다.

서 개혁 진영의 대선 승리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촉구하며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 박근혜의 싸움"이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개혁 진영의 대선 승리는 내부적 치열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 치열함이 전제돼야

시대적 요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미래 가치를 내세운 치열한 경쟁, 단 한 표라도 더 끌어오려는 헌신 등 내부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수경 후보의 후보 단일화 등 개혁 진영이 어떠한 카드를 동원한다고 해도 국민적 지지를 견인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변화를 주도할 사람들이 시기를 기다리거나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라고 주장하며 민심의 변화를 주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결국, 개혁 진영의 2012 대선 승리의 법칙은 외부적 여건에 앞서 내부적 치열함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반발을 촉구한다.

(서울취재부장) tuim@kwangju.co.kr

시설

수십억 들인 광주 폴리 홍물 전략이라니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 폴리(Folly)'가 홍물로 변하고 있다. 광주 대표 어린이자 도심 중추 문화관광상품으로 키워내겠다는 애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젊은이들의 낙서장으로 바뀌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28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내에 11개의 폴리리를 설치했지만 장동사거리 후안 해로로의 '소통의 오두막'을 제외하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당초 취지를 살릴 활성화 방안이 없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프란시스코 사신의 폴리인 '사랑방'은 홍물로 변한 지 오래다. 낙서로 가득하고 주변엔 현란한 그래피티까지 더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은커녕, '혐오시설'이라 할 정도다.

더욱이 낙서를 지우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다음달부터 1000만 원을 들여 야간경비까지 세울 계획이라

니 할세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환경연합 등이 26일 '광주 폴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민포럼을 연 것으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사랑방' 뿐만 아니다. 송호상씨 '푸른길 문화센터'는 개방이 안돼 발길이 끊겼다. 문화재단의 '광주 폴리투어'도 지난 4월 첫 '체류 투어'에 참가자가 없어 무산되는 등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 활성화 방안은 전무하다. 올 폴리 예산 5400만 원 중 청소비 2600만 원, '사랑방' 보수비 1000만 원, '사랑방 야간 경비 용역비' 1700만 원을 제외하면 콘텐츠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은 입도 못 낼 수 없다.

폴리의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내리는 공공시설물로 사랑을 받지 않을 것이다.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파업은 안 된다

경양남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노사 갈등으로 인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노조가 지난 20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 13% 인상과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상여금 회복 및 성과급 지급, 해고자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10년 워크아웃 개시 당시 합의했던 기본급·상여금 삭감 등 임·단협 준수와 노사동시 및 특별합의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노조의 파업 수순 돌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3월 노사간의 갈등으로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워크아웃 중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고 있는 지금 노사간의 갈등은 회사 회생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 등과 함께 가뜰스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금호타이어는 2년 전 장기간에 걸친 노사 갈등으로 법정관리의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가까스로 타협안을 마련해 겨우 '숨통'이 트인 상태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회사와 280억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연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강조하지만 우리는 노조 행위에 대해 일체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되면 공장 타이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게 돼 국내 판매망과 해외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 신인도 추락에 따라 회사 정상화는 그만큼 멀어진다.

따라서 회사와 임직원, 지역사회 모두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파국만큼 막아야 한다. 노조가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70년 한겨울 차가운 비가 추추추추 내리던 12월 7일의 한낮.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는 수행원들과 함께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립묘지를 찾았다. 그곳은 나치에 의해 희생된 40여만 명의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는 묘역이었다.

무거운 표정으로 현화를 마친 뒤 몇 발짝 뒤로 물러서 목념을 하던 총리의 무릎이 갑자기 꺾였다. 차갑게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총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어선 사진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러댔고 다음날 그 사진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독일인들은 냉담했지만, 정작 사진을 접한 폴란드와 유럽인들은 진심 어린 브란트의 사과와 참회를 받아들였다.

유럽의 언론은 이렇게 평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 일로 인해 전세계는 독일을 용서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었다. 브란트는 이어 1973년엔 이스라엘을 방문,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만행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소

라벨 수상이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일본군 위안부(THE COMFORT WOMEN)를 둘러싼 일본의 치졸한 대응이 발생이다. 일본 중의원의 의원들이 미국에 세워진 위안부 기립비 철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엔 한 일본인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는 테러를 자행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일본 대사관 앞에 매춘부상(소녀상)이 있다.'라는 망발까지 내뱉었다.

무려 20여 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 여성과 소녀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착취를 당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새로운 시작은 진실 어린 사과로부터 시작된다. 일본 총리가 위안부 기립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은 언제쯤이나 올까.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주연실·광주시 동구 신수동